

다향오리

이국적인 오리요리 쿠킹클래스 진행



다향오리는 1월 11일 한남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오리고기를 활용한 파스타·커리 요리 레시피를 선보이는 쿠킹클래스를 진행했다.

이번 쿠킹클래스는 최근 선정된 '다향오리 소비자 모니터 요원 8기'를 대상으로 진행됐

다. 8기 요원들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영양식 및 건강 레시피에 관심 많은 30~40대 주부 및 여성들로 구성됐다.

이날 쿠킹클래스 참가자들은 한국인이거나 누구나 좋아하는 불고기 소스에 불맛을 더한 다향오리의 대표 인기제품 열탄불고기를 비롯한 다향오리의 다양한 제품들이 제공돼 특별한 재료 손질이나 복잡한 조리과정 없이 손쉽게 오리고기 요리를 만들 수 있었다.

특히, 오리고기를 활용한 '라구 파스타'와 '버터 핫덕 커리' 레시피를 시연하는 시간을 통해 열탄불고기와 토마토 소스로 맛을 낸 라구 파스타와 오리고기와 가람마살라, 강황 등을 넣어 만든 버터 핫덕 커리 등 이국적인 오리고기 일품요리 레시피들이 공개돼 큰 관심을 모았다.

농협사료

배합사료 가격할인 연장...생산비 절감 기여

농협사료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실시해 온 배합사료 2.2% 할인판매를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한다.

당초 사료가격 할인은 1월 15일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AI 등 가축질병 발생, 한미 FTA 재협상 등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국제 곡물가격 인상으로 인한 사료가격 인상 요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할인 기간을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수 농협사료 대표이사는 “금번 가격할인 연장결정은 강력한 경영 혁신으로 원가 절감 등 생산성을 제고하여 사료가격 인상요인을 극복하고자 하는 농협사료의 경영 개선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축산농가에게 실익을 제공한다는 농협사료의 목표에 부합한다”면서 금번 가격할인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농협사료는 금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추가적으로 약 101억원의 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절감 기여액은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